



**부안 백련초, 달걀 팔아 모은 수익금 기탁 '훈훈'**

부안 백련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지난 27일 근농인재 육성재단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탁금은 학생들이 직접 닭을 키워 달걀을 판매하고, 바자회 등을 통해 한 푼 한 푼 마련했다. 29일 백련초에 따르면 달걀 판매를 통한 나눔 실천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백련초는 2024년 3월부터 하서면 3개교 통합 예정으로 1년 후에는 없어질 학교다. 12월 현재 학생 수는 유치원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백련초 구성원들은 지난해부터 STEAM 활성화 사업 및 지구실시기 실천의 일환으로 닭을 기르고 있다. 닭장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다. 매일 생산되는 유정란은 학생들의 간식으로 제공되거나 가정으로 4구씩 선물로 보내지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 성황리 마쳐**

정읍시 문화복지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돌레(이사장 안수영)의 인문학 토크 콘서트 '농담'이 지난 28일 정읍시체육관에서 정읍의 겨울밤을 따뜻함으로 가득 채웠다. 본 공연은 2019~2021년 총 13차례의 공연을 통해 전석 매진 등을 기록한 정읍만의 독자적인 공연으로 2019년 3월 26일 '시적(詩作)'이란 주제로 시작했다. 또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가 진행을 맡아 더욱 화제를 모았고, 소리꾼 오정혜의 모습으로도 무대에 올랐다. /정은성 기자



**군산 진테크, 대한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 캠페인에 군산의 진테크(대표 진규식)가 동참해 희망나눔을 실천했다. 진테크는 군산시에 위치한 강소기업으로서 굴삭기, 휠로더 등 건설중장비의 주요 핵심 기능 부품들을 조립하는 기계부품 전문회사로 2016년 설립됐으며, 건설기계, 전기차, 도로 안전 설비 등에도 연구개발을 투자하며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주력하고 있다. 진규식 진테크 대표는 "전 임·직원이 동참해 연탄봉사, 급식봉사 등에도 관심을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K-water 용담댐지사, 방한용품 선물꾸러미 전달**

K-water 금강유역본부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와 진안군 용담면사무소 (면장 조영희)는 29일 용담면사무소에서 따뜻한 겨울나눔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K-water 금강유역본부 용담댐지사는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진안군 용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인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기부했다. 이날 받은 핫팩, 넥워머로 이루어진 기부물품은 용담면사무소를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활동은 용담댐지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미래 가치 창출”

**바이오진흥원, ESG 경영 혁신 선포식… 비전 제시·현장 제정 등 세부 전략 발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같이하기 위한 ESG 경영 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29일 진행된 선포식에는 이은미 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의 ESG 경영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와 더불어 올바른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ESG 현장을 제정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혁신 실행 등 환경경영(E)을 실천하여 실질적이고 건전한 환경 구현, 근로자 인권보장, 공정거래 등 사회적책임(S)을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관행 구축 윤리경영 정책 수립 및 ESG 성과 공유 등 의사결정구조(G)를 통해 윤리기준 및 건전한 의식 정착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 구현의 실천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장 낭목을 통해 전라북도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기관으로 도약 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진흥원의 발전전략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국가·국민, 전라북도, 도민 기업, 유관기관, 직원 등)의 가치를 증진하는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흥원 본연의 기능 수행에 ESG 경영을 더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의대 동문부부,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임형선(90학번)·백수경(93학번) 부부 동문이 후배들을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29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김관우 발전지원재단 이사장 임석태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두 동문은 대학생활을 함께 한 의대 선후배 사이이자 부부다. 재학 당시 은사님들과 모교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생활을 했다. 특히 이들의 자녀 또한 전북대에 재학중이어서, 이번 기부 동문 가족의 기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형선·백수경 동문은 "가족 모두가 전북대 동문인 만큼 모교가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 기금이 젊은 날의 우리처럼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은 전북대 의과대학에 지정돼 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나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기금은 전북대 의과대학에 지정돼 학생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금속가공소공인협, 불우이웃돕기 1400만원 성금 기탁**

전주시는 전주금속가공소공인협의회(회장 송병삼)와 소공인연합동조협(회장 김강식)이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14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팔복동 일대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소공인 94곳 이상이 집적돼 있다. 이곳은 전북 금속가공 소공인 최대 집적지에 해당한다. 전주금속가공 소공인협의회는 현재 57개 회원사가 소공인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과 소통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공인연합동조협도 'So Goods'라는 이름으로 기계·금속가공 소공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경쟁력 있는 IoT 융합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35개사의 제조업, 유통업, 세무사 그리고 백년 소공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성금을 모아주시는 소공인 사업자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다. 이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을 2023년 12월에 완공해 협력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조직·협업화를 통한 기업 운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아영 기자



**적십자 봉사회, 중화산1동에 겨울철 난방유 지원**

전주시 중화산동(동장 유은례)에 적십자봉사회(회장 지은숙)가 관내 겨울철 에너지 취약 대상자를 위한 20만 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지은숙 중화산동 적십자봉사회장은 "주위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유은례 중화산동 동장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 적십자봉사회는 저소득층 세대에 이불, 건강반찬꾸러미, 빨래봉사 등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연탄은행, 순창군에 연탄 3000장 나눔**

사단법인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은 지난 28일 순창군을 찾아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연탄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호남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무료로 연탄 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2020년 여름 순창군이 큰 수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 가구에 도배 등 무료 집수리사업을 지원해준 단체이기도 하다. 이날 전주연탄은행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적십자 노인 부부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한 정화영 부군수는 "최근 우리 지역에 폭설로 특히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사랑의 연탄을 순창까지 나눠주신 전주연탄은행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덕진소방서 구급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전주덕진소방서 구급대의 출동 사례가 지난 28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 올랐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는 전미119안전센터의 구급대원 최환석(소방교 32세), 설수경(소방교 35세) 대원과 팔복119안전센터 김정수(소방사, 28세) 대원 등의 구급 출동 사례가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은 지난 6월 7일 덕진구 송천동에 거주 중인 A(62)씨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환자 평가에서 심정지 상태로 확인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팔복센터 구급대가 도착해 '스마트 의료지도'로 전환 전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현장을 연결했다. /김영태 기자



**제이온, 장애인복지관에 유아곡수 등 먹거리 후원**

유아용 식품 전문기업 제이온(대표이사 이현기)은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관장 강병은)에 자사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유아곡수, 다사과, 아이쌀죽, 바로다미방 곡수' 등 총 1,678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후원했다. 제이온은 국내 생산품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 및 수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이동 구호를 실천하는 가족친화형 기업으로 매년 유아곡수, 쿠키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현기 대표는 "장애 인식개선과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안심 먹거리를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병무청, 병역이행 응원메시지 군부대 전달**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임실에 위치한 제85보병사단을 방문해 병역이행 응원메시지와 축구공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29일 가졌다. 응원메시지 보내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지난 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병국민 캠페인이다. 응원메시지는 전북지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통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으며, 전북 지역에는 총 747개의 메시지가 접수됐다. /김영태 기자



**중화산2동 이웃사랑 나눔 후원 물결 잇따라**

중화산2동 자생단체 및 주민자치 회원들이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백미 등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쏟았다. 지난 2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회장 강덕수)에서 이웃돕기 성금 2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26일 봉양단협의회(회장 오현순)에서 3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외 최재호베이커리(대표 최재호)는 2kg짜리 백미 30포를 전달하는 등 경제불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김영태 기자